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동화 활용 어휘 교육 방안 연구

— 촉각 형용사를 중심으로 —*

문희진** · 손경애***

국문초록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어휘력 함양을 위해 동화를 활용한 촉각 형용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 내에서 충분한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촉각 형용사 교육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미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적 가치가 높은 동화를 활용한 촉각 형용사 교육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화 활동의 교육적 효용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제시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동화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촉각 형용사가 다양하게 들어간 동화 20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수-학습 단계를 '수업 계획 단계, 수업 단계, 수업 평가 단계' 세 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단계별 수업 방안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화『피부는 요술옷』을 활용한 촉각 형용사 교육의 실재를 제시하여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가 향후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휘 교육에 참고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제어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정 아동, 동화, 촉각 형용사, 교육 방안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19년도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gmlwls3238@hanmail.net)

*** 교신저자, 호남대학교 한국어학과 조교수(seolson@honam.ac.kr)

I. 들어가는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또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수가 10년간 약 1.7배 증가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동 기간 약 4.6배 증가하였다.¹⁾ 최근 10년간 한국의 초등학교 수가 점차 감소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통계에 따르면 언어 평가를 받은 다문화가정 자녀 5,398명 중 언어 발달 지원이 필요한 자녀는 2,928명으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언어 발달 지원이 필요한 자녀 비율은 학령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 뿐만 아니라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은 비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늦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선정·강진숙, 2009; 김미진, 2012; 김유리·이현정, 2016). 이러한 현상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지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언어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내에서 비다문화가정과 같은 언어 자극을 제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가정 외에서의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

언어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살아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어휘 중에 하나는 감각 어휘이다. 이와 관련

1)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외국인주민현황조사. 행정안전부, '19.11월 기준, 단위: 명)

연도	결혼 이민자	연령별 현황				
		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2019	173,882	264,626	117,045	104,064	26,524	16,993
2008	102,713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자료, 초등학교 수 (단위: 만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학생 수	313.2	295.2	278.4	272.9	271.5	267.3	267.4	271.1	274.7	269.4

된 감각 형용사³⁾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가장 먼저 인지될 수 있는 감각을 표현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감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감각 형용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각 형용사 중에서도 촉각 형용사는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⁴⁾ 의미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동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촉각 형용사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1년 12월 현재까지 감각(촉각) 형용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RISS(국내 학술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총 24편이 검색되었고, 24편 중 국내 학술논문 12편, 학위논문 20편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구된 논문은 장세영(2009)의 한국어 감각 형용사의 인식 비교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감각 형용사를 선정하고 모국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각 50명) 간의 감각 형용사에 대한 인식을 비교했다. 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하게 발달된 한국어 감각 형용사는 외국인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감각 형용사를 학습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⁵⁾을 대상으로 촉각 형용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동화⁶⁾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감각 형용사는 ‘신체 내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아,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형용사’라고 정의된다(손경호, 2013).

4) 감각 형용사 통계 (박문석, 1986; 정영유, 2012에서 재인용)

	시각 형용사	미각 형용사	온도각 형용사	촉각 형용사	청각 형용사	후각 형용사	통각 형용사	기관감각 형용사	근육감각 형용사	합 계
어휘수	369	102	81	182	50	61	12	70	59	986
비율%	37.42	10.34	8.22	18.46	5.07	6.19	1.22	7.10	5.98	100
순위	1	3	4	2	8	6	9	5	7	-

5) 본 연구에서의 아동은 교육법에 따라 만 6세~12세까지로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 아동으로 설정하였고, 한국어가 제 1언어로서 능통하고 비다문화가정 아동과 유사한 언어 능력을 구사하고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6) 국립국어원(2012)에 의해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텍스트의 종류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 ‘설명하는 글’이 46명(1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화’는 33명(8.0%), ‘생활문’ 26명(6.3%), ‘대화문’ 23명(5.6%), ‘그림일기’, ‘독후감’ 21명(5.1%) 순으로 ‘동화’가 비교적 많은 응답률을 차지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아동과 동화 활용 어휘 교육

다문화가정 아동은 또래 아동에 비해 낮은 언어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김영태, 2014; 배소영 외, 2010), 학교 부적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달, 200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낮은 언어수용능력을 보이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어휘 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육해야 할 분야이다(한재영 외, 2010).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언어 기능(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수업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어휘 수업은 없는 편이고, 어휘 교재는 주제별, 대학 전공별, 시험 대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출판되고 있지만, 아직 어휘 전문 교재는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류승의 외, 2020).

한국어 형용사 어휘는 동사와 함께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는 기본 품사이며, 실생활에서의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몸의 감각을 인지하여 표현할 수 있는 감각 형용사는 미세한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TIAN XU,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언어환경에 놓인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정미란, 2016) 감각 형용사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촉각형용사를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화를 활용한 교육 방법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황은지, 2019; 안진숙, 2019; 조정숙, 2021) 동화는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반복되는 구조의 스토리는 어휘와 문법의 습득에 유용하다. 또한, 강세, 억양 등의 언어 습득에 유익하다(심영택, 2018). 이와 같은 교육적 가치를 지닌 동화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수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동화를 활용한 촉각형용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촉각 형용사의 개념 및 분류

촉각은 물건이 피부에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 압각, 통각 따위이고 살갓이 외부의 사물에 닿아서 생기는 감각이다. 그리고 피부에 있는 표면의 자극이 온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물건과의 접촉에 의해서만 생기는 압각·통각 같은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⁷⁾ 촉각은 일상 생활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 가장 먼저 인지될 수 있는 감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어휘라고 볼 수 있다.

촉각 형용사의 개념 및 분류는 앞서 진행된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최현배(1961)는 촉각 형용사를 압각(누름), 온도각(따뜻함), 통각(아픔), 기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그중에서 피부에 긁고 싶은 느낌과 관련있는 기타(±간지러움)을 따로 분류하였다.

정재윤(1989)은 촉각 형용사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정상적 촉각 동사라고 칭하였다. 촉각이란 어떤 대상에 신체의 일부가 접촉함으로써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라 말하며 감각되는 부위에서의 측면으로 촉각은 다른 감각들과는 달리 감각기관 성분을 확실하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지희(2007)는 촉각 형용사를 외부 자극에서 느껴지는 피부 감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며, 촉감각, 통각, 온도각으로 분류하였다.

장세영(2009)은 촉각 형용사란 신체의 일부가 느끼는 감각이라고 말하며, 접촉 대상의 종류나 신체의 반응에 따라 분류된다고 하였다. 촉각 형용사를 신체 외부기관의 느낌과 신체 내부기관의 느낌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현배(1961)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의 견해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써 촉각 형용사를 ‘피부에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로 정의하고자 한다.

위 선행 연구들의 촉각 형용사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촉각 형용사 분류 목록

학자	분류	어휘
최현배 (1961)	압각(누름)	미끄럽다, 매끄럽다, 거칠다, 날카롭다, 둔하다, 무디다, 단단하다, 연하다, 무르다, 무겁다 등

7) 순서대로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국어대사전》에서의 ‘촉각’의 정의

학자	분류	어휘	
	온도각(따뜻함)	차다, 덥다, 뜨겁다, 춥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선선하다 등	
	통각(아픔)	아프다, 따갑다, 쓰리다 등	
	기타	가렵다, 간지럽다 등	
정재윤 (1989)	촉각 동사	거칠다, 미끄럽다, 단단하다 등	
	통각 동사	아프다, 쑤시다, 저리다 등	
	온각 동사	따뜻하다, 덥다, 뜨겁다 등	
	냉각 동사	차다, 시리다, 춥다 등	
김찬화 (2005)	표면촉각	거칠다, 부드럽다, 굳다 등	
	온도감각	냉각류	춥다, 차갑다, 시리다
		온각류	덥다, 따뜻하다, 뜨겁다
	통감	가렵다, 쓰리다 등	
이지희 (2007)	촉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가칠하다, 거칠다, 까끌까끌하다 등) · ㄴ(날강하다, 녹녹하다, 눅눅하다 등) · ㄷ(도독하다, 도톨도톨하다, 도톰하다 등) · ㄹ(만만하다, 만질만질하다, 말랑하다 등) · ㅂ(바삭하다, 반드럽다, 반질하다 등) · ㅅ(살피다, 살뽀하다, 숙부드럽다 등) · ㅇ(야들야들하다, 얇다, 연하다 등) · ㅈ(진득하다, 질척하다, 찢득하다 등) · ㅊ(촉촉하다, 추지다, 축축하다 등) · ㅌ(탄탄하다, 탱탱하다, 튼튼하다 등) · ㅍ(파삭하다, 포근하다, 포송하다 등) · ㅎ(하늘하늘하다, 호물호물하다 등) 총 417개	
	통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가렵다, 간지럽다, 근지럽다 등) · ㄷ(따갑다, 따끔하다, 뜨끔하다 등) · ㄹ(무렵다, 매시근하다 등) · ㅂ(뽀뽀지근하다 등) · ㅅ(시큰하다, 시다, 시리다 등) · ㅇ(아리다, 얼얼하다, 오싹하다 등) · ㅈ(저리다, 찢릿하다, 찢릿하다 등) 총 80개	
	온도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ㄷ(덥다, 따뜻하다, 따사롭다 등) · ㄹ(무덥다, 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등) · ㅅ(사늘하다, 살랑하다, 서늘하다 등) · ㅇ(온호하다, 온화하다, 온난하다 등) · ㅈ(차갑다, 차다, 춥다 등) · ㅎ(후끈후끈하다, 후덥지근하다, 훈훈하다 등) 총 84개	

출처: 문희진(2019)

위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촉각 형용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

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각 형용사 중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촉각 형용사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위에 제시된 표의 촉각 형용사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어휘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촉각 형용사 분류 목록 중에서도 동화 속에 나오는 촉각 형용사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동화를 활용한 언어 교육 교수·학습 모형

이 절에서는 문학을 활용한 세 가지 교수·학습모형을 비교 분석하여 촉각 형용사 교육에 적용 가능한 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동화를 활용한 언어 교수법인 문학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수법¹⁾을 살펴보고, 문학을 활용한 교수법인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살펴본 후, ‘감각 놀이를 통한 언어 교육’과 ‘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학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수법

이차숙(2005)은 ‘문학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수법’을 문학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나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전개하면서 유아의 언어 능력을 길러주는 교수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교수법은 유아가 말과 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유아나 교사가 함께 글이나 책을 찾아 읽고 내용에 대하여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읽은 글이나 책과 관련된 다른 책을 찾아오는 등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을 강조한다. 또한,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경험을 통해 언어 능력을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문학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수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림책을 선정하고

둘째, 활동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책 읽어주기 전, 책 읽어주기, 책 읽어주기 후 등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셋째, 평가 단계이다. 수업에 대해 교사가 자체 평가를 한 후, 다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학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수법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동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연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

점이 있다.

2) 총체적 언어 접근법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1960년대 초, 모국어가 영어인 어린이의 읽기 능력발달을 위해 굿맨과 스미스(Goodman & Smith)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굿맨(Goodman, 1976)은 이야기 → 문장 → 단어 → 글자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즉, 의미를 이루는 큰 부분을 이해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예측하고 수정하면서 동기가 지속되어 작은 단위까지 학습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어지는 심리 언어학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학습 방향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서는 문학작품의 전체를 이해한 후 문장, 단어 순으로 학습을 하고, 언어의 네 가지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는 교사의 개입보다는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강문희·이혜상,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통합하여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전체적인 교수법으로 두고 교수·학습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전체에서 부분의 순서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화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단어의 활용 방법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어휘 교육에서의 한계점이 있다.

3) 감각 놀이를 통한 언어 교육

‘놀이’란 국어사전에서 신체적·정신적 활동 중에서 식사·수면·호흡·배설 등 직접 생존에 관계되는 활동을 제외한 ‘일’과 대립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놀이에 대한 정의는 Rubin, Fein, Vandenberg(1983)의 ‘놀이가 지닌 특성 5가지’이다(장혜순, 2004).

첫째, 놀이는 내적으로 동기 유발이 된다. 둘째, 놀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셋째, 놀이는 비문자적이다. 넷째, 놀이는 자유롭게 선택되어진다. 다섯째, 놀이의 특성 중의 하나는 즐거움이다.

놀이의 중요성은 주변 세계를 숙달하도록 돕고 정서적 적응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의력·문제해결 능력·사회성 발달 또한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운동·언어·문화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지성애 외, 2012).

이와 같이 감각 놀이는 감각 자극을 통해 개념을 내재화할 수 있고 문해 능력 발달에도 효과가 있으며, 흥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활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교사의 수업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휘 교육에서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문학을 활용한 언어 교육 교수법의 장점을 종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다문화가정 이동을 위한 동화 활용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4) 동화를 활용한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 모형

본 논문에서의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 모형은 ‘유아 문학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수법’을 활용하여 계획 단계·활동 단계·평가 단계로 나누었다.

계획 단계는 수업 전에 이루어진다. 교사가 수업에서 진행할 동화를 선정하고 수업 중에 사용될 자료를 수집하여 전체적인 수업 흐름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활동 단계는 수업이 진행되는 단계이다. 도입, 전개, 마무리 세 단계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전개 단계의 전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은 ‘총체적 언어 교수법’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동화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한 후 문장, 단어 순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전개 단계에서 마지막 활동은 ‘감각 놀이’를 활용해 목표 어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 단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동화를 활용한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 모형

학습 단계	학습 활동	교수학습 내용	시간
도입	흥미 유발	<상자 속 물건 맞추기> · 동화 속 촉각 형용사 관련된 물건이 들어있는 궁금이 상자를 소개한다. ·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을 만져보며 느낌을 말하고 물건을 추측해 본다. · 상자 밖으로 물건을 꺼내 물건의 이름과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5분
전개	읽기 전 활동	<동화책 이야기 나누기> · 책의 표지 그림과 제목 등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 제목과 관련된 생각 및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다양한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5분
	읽기 활동	<동화책 읽기> · 교사가 동화 제목을 천천히 읽는다. · 교사가 동화를 읽어 주고 학습자는 동화를 감상한다. · 동화를 읽으면서 촉각 형용사 어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는다. · 동화를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예측해 본다. · 동화를 다 읽은 후에는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되짚어 본다. · 개별 활동으로 동화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 * 개별읽기 활동을 위해 동화 내용이 적힌 활동지를 제공함.	15분
	읽기 후 활동	<확장 활동-감각놀이> · 촉각 형용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다. · 물건을 탐색하며 촉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 동화 속에 나온 촉각 형용사를 찾는다. · 교사와 함께 동화 속 촉각 형용사를 찾는다.	20분
마무리	평가	<평가하기> · 새롭게 알게 된 촉각 형용사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 학습과정에서 헛갈리거나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한다.	5분
	마무리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출처: 문희진(2019) 재구성

수업이 끝난 후에는 평가 단계를 진행한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얻게 된 내용은 무엇인지, 수업 진행 과정 중에서 수정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에 대해 평가를 한 후, 다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동화를 활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지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능률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환경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동화를 선정해 교육 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적합한 동화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동화 선정 기준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만의 동화 선정 기준을 구성하여,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촉각 형용사 교육용 동화 목록

록도 함께 선정하고자 한다.

Ⅲ. 촉각 형용사 교육용 동화 선정 기준과 목록

다문화가정 이동을 대상으로 동화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먼저, 선정된 동화에 다문화가정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정서나 문화가 내재되어 있을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동화에 대한 흥미나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동화를 활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지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능률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학습자의 환경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동화를 선정해 교육 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먼저, 동화 구성 요소 및 동화 선정 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동화 선정 기준을 제시한 후, 선정된 기준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적합한 촉각 형용사 교육용 동화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촉각 형용사 교육용 동화 목록

다문화가정 이동을 대상으로 동화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동화를 가르칠 것인가를 선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화가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를 살펴본 후, 동화 선정 기준 또한 검토하여 본 논문만의 촉각 형용사 동화 선정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동화 구성 요소와 선정 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동화 구성 요소는 크게 ‘주제, 구성, 문체’⁸⁾ 세 가지로 나뉜다(강문희·이혜상, 2008; 박진환, 2012; 황선미, 2006). 다음으로, 동화 선정의 조건 및 기준을 살펴보면, ‘교육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제’, ‘다양한 주제의 동화 목록 선정’, ‘아동이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주제 등이 있다(김영미, 2001; 김자연(2003); 서정숙·남규, 2014; Ellis & Brewster, 1991). 이를 중

8) 주제(thema)는 이야기 속에서 작가의 생각을 전해주는 중심 사상을 말한다. 동화의 주제는 아동에게 교육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준다. 다음으로, 구성(construction)은 동화 속 이야기를 생동감 넘치게 하는 힘이며 작가가 주제를 이끌어 나가는 기술을 말한다.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물, 배경, 사건의 전개(이야기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문체(language style)란 작가의 언어 표현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작가의 문체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좋은 동화는 아동이 동화를 읽을 때 상상력이 발휘되는 문체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동화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문체여야 한다(강문희·이혜상, 2008).

합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촉각 형용사 교육용 동화 선정 기준

동화 구성 요소	선정 기준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제 · 다양한 주제의 동화 목록 선정 · 아동이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주제 · 아동의 수준과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고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문화 존중 · 주인공의 선한 성격 · 인물, 배경, 사건 전개의 조화 ·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사건 구성
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문장 길이 · 다양한 촉각 형용사 · 문장 및 어휘 반복 · 뚜렷하고 분명한 의미의 문장

출처: 문희진(2019: 37)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동화의 선정 기준에 알맞은 동화를 선정하여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화 선정 목록의 주제는 국립국어원(2012)의 설문 조사 결과⁹⁾에 따라 상위 5개의 주제를 참고하여 ‘일상생활(학교생활-예절)’, ‘인간관계(가족-친구관계)’, ‘감정’, ‘자연(계절과 날씨)’ 총 4개의 주제로 재구성하였다.

동화 선정 목록에 제시된 동화는 또래 비다문화가정 아동이 학습하고 있는 교재에 비해 문장의 길이가 짧고 단순할 수 있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촉각 형용사 교재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연령에 적합한 만 0~7세를 대상으로 한 동화를 선정하였다.

학교생활(일상생활) 주제에 적합한 동화 중의 하나인 『피부는 요술옷』으로 동화 선정 목록의 타당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동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몸은 피부로 덮여 있어. 피부색은 사람마다 달라. 피부가 흰 사람도 있고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어.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른 건 원래 살던 곳이 달라서래.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고 있는 피부는 어떤 일을 할까?

9) 국립국어원(2012)에 의해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분석결과 ‘학교생활’에 대한 응답 수가 39명(8.5%)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은 32명(7.0%), 감정은 28명(6.1%), 예절은 23명(5.0%), 계절과 날씨 및 친구관계가 23명(5.0%) 순으로 나타남.

햇볕이 쨍쨍 뜨거운 여름에는 피부가 조금 까매졌다가 햇볕이 적은 겨울에는 다시 하얗게 변해. 피부가 매끌매끌하다고? 자세히 들여다 봐. 온몸에 털이 나 있지?

팔에도, 얼굴에도, 귓속에도, 콧속에도 작은 털들이 송송송. 몸에 난 털도 피부야.

그럼 머리카락도 피부일까? 맞아, 머리카락도 피부야.

머리카락은 나무 그늘처럼 따가운 햇볕을 막아 주고, 털모자처럼 찬바람도 막아 줘.

(중략)

딱딱한 손톱도 털이 없는 피부야. 가려운 곳을 잘 긁을 수 있고, 물건도 잘 집게 해줘.

피부가 있어서 눈을 감아도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알 수 있어.

아주 포근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분명 엄마가 안아 주실 때야.

늘 좋은 느낌만 드는 건 아니야. 넘어져서 상처가 나면 따끔거리고, 지나가다 공에 맞으면 얼얼하기도 해. 어쩌다 뜨거운 냄비라도 만졌을 땐 정말 기분 나쁜 느낌이라니까?

(중략)

하얀 피부, 까만 피부, 노란 피부. 긴 머리, 짧은 머리, 곱슬머리. 색깔이나 모양은 달라도 피부는 늘 우리를 지켜 줘. 마치 요술옷처럼.

피부는 요술옷, 장기화 글 중에서

동화『피부는 요술옷』은 피부를 요술옷에 비유하여 아동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각과 피부의 기능에 대해 흥미롭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동화이다.

이 동화책의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어 아동이 동화를 읽으며 가질 수 있는 호기심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리고 동화 속의 문장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체가 구성되어 있고, 동화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사는 환경에 따라 피부색, 머리의 길·색·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이 다인종이 함께 살아감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화 내용 속에 다양한 촉각 형용사가 자연스럽게 제시됨으로써 촉각 형용사 교육에 효과적인 학습 교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로 다문화가정 이동을 위한 촉각 형용사 한국어 교육용 동화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촉각 형용사 교육용 동화 목록

주제	동화 제목	작가	출판사	대상 연령
일상생활 (가족예절)	피부는 요술옷	장기화	아람	초등(만 6~7세)
	같이입는 피부	조은수	아이세움	초등(만 6~7세)
	보들보들 무엇일까?	박정선	시공주니어	영아(만 0~2세)

주제	동화 제목	작가	출판사	대상 연령
	앗, 다쳤어요! 어찌죠?	최혜영	다우림	유아(만 3~5세)
	면역. 지금이야, 공격	허윤영	이수	유아(만 3~5세)
가족친구 (인간 관계)	삼 형제와 사나운 개들	김용란	이수	유아(만 4~7세)
	아주 조그만 집	이상교	보림	영아(만 0~2세)
	초록 숲의 클로버	김보라	마카롱	초등(만 6~7세)
	코코야 뭐하니?	우경아	그레이트	유아(만 3~5세)
	뼈를 찌자, 찰각	김용란	이수	유아(만 3~5세)
감정	가루 가루, 밀가루야	하늘땅	아람	영아(만 0~2세)
	엄마, 내가 싫어요?	정재림	그레이트	유아(만 3~5세)
	모두 모두 정말 좋아	윤여림	웅진주니어	영아(만 0~2세)
	피 속으로 뽕!	우순교	이수	유아(만 3~5세)
	빵이다 빵!	부루통이사무소	이수	유아(만 3~5세)
자연 (계절과 날씨)	돌이 돌돌돌	황인순	이수	초등(만 6~7세)
	만져 봐 불어 봐	이태수	보드북	영아(만 0~3세)
	사계절은 무슨 색깔일까?	강수진	연두비	영아(만 0~3세)
	누구 때문이지?	이유정	이수	유아(만 3~5세)
	화석에 숨겨진 이야기	안지은	이수	초등(만 6~7세)

출처: 문희진(2019: 41) 재구성

위 <표 3-2>에 제시된 동화는 촉각 형용사 어휘가 5개 이상 수록된 동화이며,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연령에 맞추어 만 0~7세를 대상으로 출판된 동화를 선정하였다.

IV. 동화를 활용한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 실제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교수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동화『피부는 요술옷』을 활용한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의 실재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업 계획 단계

먼저, 촉각 형용사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주제를 선정한다. 그리고 주제에 맞게 동화를 선정한다. 주제를 일상생활로 선정하여 동화 선정 목록에 있는 동화 중 하나인 『피부는 요술옷』으로 수업을 계획한다.

다음으로, 촉각 형용사 자료 수집을 한다. 동화 속에 나오는 촉각 형용사 어휘를 수집한다. 그리고 수집한 촉각 형용사의 의미와 예문을 수집하여 표로 정리한다. 정리한 자료는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피부는 요술옷』촉각 형용사 어휘 목록

번호	촉각 형용사	의미 및 예문 ¹⁰⁾
1	뜨겁다	- 어떤 것의 온도가 높다. · 뜨거운 커피, 뜨거운 물 · 불 위에 올려진 냄비는 뜨거웠다.
2	매끌매끌하다	- 저절로 밀려 나갈 정도로 거친 데가 없이 매우 부드럽다. · 매끌매끌한 가죽, 매끌매끌한 피부 · 먼발이 매끌매끌해서 국수가 잘 넘어간다.
3	따갑다	- 살이 따끔거릴 만큼 덥다. · 따가운 여름 햇살 · 햇살이 따가우니까 모자를 꼭 쓰고 다녀야 한다.
4	차다	- 온도가 낮아 따뜻한 느낌이 없다. · 찬 바닥, 찬 얼음 · 내 친구는 항상 손발이 차다.
5	아프다	- 다치거나 병이 생겨 통증이나 괴로움을 느끼다. · 아픈 사람, 아픈 곳 · 의사는 내가 앉자마자 아픈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6	딱딱하다	- 매우 굳고 단단하다. · 딱딱한 과일, 딱딱한 의자 · 떡을 밖에 오래 두었더니 딱딱하게 굳었다.
7	가렵다	- 살갓을 긁고 싶은 느낌이 있다. · 가려운 곳, 가려운 눈 · 등이 가려워서 계속 긁었더니 상처가 났다.
8	부드럽다	- 살갓에 닿는 느낌이 거칠거나 뻣뻣하지 않고 미끄럽다. · 부드러운 아기 살결, 부드러운 머릿결 · 면으로 만들어진 담요는 부드럽다.
9	포근하다	- 두꺼운 물건이나 자리가 보드랍고 따뜻하다. · 포근한 담요, 포근한 이불 · 겨울에는 잠자리가 포근해야 잠이 잘 온다.
10	따끔하다	- 따가울 정도로 몹시 덥다. · 따끔한 바늘 · 민준이는 장미 가시에 찔려 손가락이 따끔했다.

출처: 문희진(2019: 52-54)

10)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참고

마지막으로, 촉각 형용사를 느낄 수 있는 실물 자료를 수집한다. 도입 단계에서 사용할 부드러운 털실을 준비한다. 그리고 촉각 상자에 털실을 넣은 채로 교실에 놓아둔다.

2. 수업 활동 단계

활동 단계에서의 교수학습 지도안은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동화를 활용한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 지도안

주제	일상생활		
학습대상	다문화가정 아동 (만 6~12세)	소요시간	50분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촉각 형용사를 알고 촉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 동화를 들은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자료	촉각 상자, 촉각 관련 물건(털실, 사과, 솜베개, 이쑤시개 등), 『피부는 요술옷』 동화 책 활동지1,2		

학습 단계	학습 활동	교수·학습 내용	시간
도입	흥미 유발	<p><상자 속 물건 맞추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 속 촉각 형용사 관련된 물건이 들어있는 궁금이 상자를 소개한다. T: 여러분, 이 촉각 상자 안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 있을까요?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을 만져 보고 느낌을 말해봅시다. ·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을 만져 보며 느낌을 말하고 물건을 추측해 본다. T: 누가 한번 나와서 이 물건을 만져 볼까요? T: OO이가 나와서 만져 볼게요. 이 상자 안에 있는 물건은 무슨 모양인 것 같아요? S: 동그란 모양이에요. T: 크기는 어떤 것 같아요? S: 작아요. T: 느낌은 어때요? S: 토끼털 같은 느낌이에요. T: 무엇인 것 같아요? (물건을 맞추지 못할 때는 다른 학습자가 만져보도록 한다.) · 상자 밖으로 물건을 꺼내 물건의 이름과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T: 네, 맞아요. 털실이에요. 털실을 만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S: 강아지 같아요. / 솜사탕 같아요. T: 네, 푹신푹신하고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어요. 털실을 만져 보세요. S: 모든 학생이 털실을 만져 본다. T: 털실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것을 ‘부드럽다’ 혹은 ‘부들부들하다’고 말해요. 	5분

	<p>T: 이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동화책을 한 권 준비해 왔어요. 이 동화책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읽어봅시다.</p>	
	<p>읽기 전 활동</p> <p><동화책 이야기 나누기> · 책의 표지 그림과 제목 등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T: 먼저 동화책을 살펴볼까요? 어떤 그림이 보여요? S: 여자 아이가 있어요. T: 여자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S: 손과 발을 보여 줘요. / 앉아 있어요. T: 네, 맞아요.</p> <p>· 제목과 관련된 생각 및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T: 제목을 같이 읽어 봅시다. S: 피부는 요술옷. T: 네, 잘 읽었어요. 피부는 뭐예요? S: 우리 몸에서 곁에 있는 거예요. T: 네, 맞아요. 피부가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S: 물건을 느끼게 해줘요. / 날씨를 느끼게 해줘요. T: 네,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동화책의 제목은 왜 ‘피부는 요술옷’일까요? S: 피부 색깔이 다양해서요. / 피부는 옷이어서요. T: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피부는 요술옷인지 책을 함께 읽어봅시다.</p>	<p>5분</p>
<p>전개 및 활동</p>	<p>읽기 활동</p> <p><동화책 읽기> · 교사가 동화 제목을 천천히 읽는다. T: 피. 부. 는. 요. 술. 옷</p> <p>· 교사가 동화를 읽어주고 학습자는 동화를 감상한다. T: (동화를 읽는다.) S: (동화를 감상한다.)</p> <p>· 동화를 읽으면서 촉각 형용사 어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는다. T: (손으로 짚어가며) 뜨거운 여름에는..... -생략-</p> <p>· 동화를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예측해 본다. T: 그림 머리카락도 피부일까? 맞아. 머리카락도 피부야. 여러분, 머리카락의 역할은 무엇일까? S: 머리카락은 겨울에 따뜻하게 해줘요. / 머리카락은 햇빛을 막아줘요, T: 우와,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네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동화책에서 머리카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S: 네. -생략-</p> <p>· 동화를 다 읽은 후에는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되짚어 본다. T: (그림을 보여주며) 여기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어요. 피부색이 다 같아요? S: 아니요, 다 달라요. T: 왜 다 다르다고 했어요? S: 살던 곳이 달라서요.</p>	<p>15분</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 개별 활동으로 동화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 T: (활동지를 나눠주며) 여기 동화 내용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동화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읽기 후 활동</p>	<p><확장 활동-감각놀이></p> <p>· 촉각 형용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다. T: 동화 잘 읽어 보았나요? S: 네. T: 동화에서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S: 네. T: 동화 속에서 어떤 단어가 있었나요? S: 따가운, 차가운, 딱딱한 등 T: 네. 모두 잘 알고 있네요.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판서를 하며) '촉각 형용사'라고 해요. 같이 읽어 봅시다. S: 촉각 형용사 T: 네. 잘 읽었어요. (조별로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S: (조별로 읽는다.)</p> <p>· 물건을 탐색하며 촉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T: (모든 조에 같은 사과를 제공한다.) 여러분, 모두 사과를 받았나요? S: 네. T: 어떤 느낌이 나는지 우리 한 번 만져봅시다. T: 이런 느낌을 (PPT를 보여주며) '딱딱하다'라고 해요. 따라 읽어 봅시다. S: 딱딱하다 T: 잘했어요. 딱딱한 느낌을 어디에서 느껴 봤어요? S: 책상에서요. T: 맞아요. 책상은 딱딱해요. 또 어디에서 느껴봤을까요? S: 머리요. T: 네, 맞아요. 머리를 눌러보세요. 딱딱하죠? 사과를 껍질을 꺾지 않고 먹어도 딱딱해요.</p> <p>(반복해서 물건을 만져보고 이야기를 나눈다.)</p> <p>T: 여러분 물건에 대한 느낌을 말할 수 있겠나요?</p> <p>· 동화 속에 나온 촉각 형용사를 찾는다. T: (활동지1를 보여주며) 다음으로는 동화 내용 속에서 촉각 형용사를 찾아서 표시해 보세요. S: (활동지에서 촉각 형용사를 찾아 표시한다.)</p> <p>· 교사와 함께 동화 속 촉각 형용사를 찾는다. T: 동화 속에 촉각 형용사가 많이 있었나요? S: 네. T: 동화 속에서 찾은 촉각 형용사를 한 조에 한 단어씩 이야기 해볼까요? S: 네. T: (한조에 한 단어씩 동화 속에서 찾은 촉각 형용사를 말할 수 있게 하고 말</p>	<p style="text-align: center;">20분</p>

		<p>한 축각 형용사를 PPT화면에 적거나 칠판에 판서한다)</p> <p>S: (동화 속에서 찾은 축각 형용사를 말한다.)</p> <p>T: 여러분 모두 잘 찾았네요.</p>	
평가 및 마무리	평가	<p><평가하기></p> <p>· 새롭게 알게 된 축각 형용사 어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p> <p>T: 새롭게 알게 된 축각 형용사가 있나요?</p> <p>S: 네.</p> <p>T: 어떤 단어였나요?</p> <p>S: '가렵다.'요,</p> <p>T: 네. 그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 있나요?</p> <p>S: 모기한테 물렸을 때요.</p> <p>T: 네.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p> <p>· 학습과정에서 헷갈리거나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한다.</p> <p>T: 혹시 아직도 잘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p> <p>S: 네/아니요.</p> <p>T: 축각 형용사에 대해서 잘 알겠나요?</p> <p>S: 네.</p> <p>T: (활동지2를 보여주며) 여기 선생님이 오늘 읽은 동화책에 들어 있는 축각 형용사를 정리했어요. 벽에 붙여 두게요.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질문하거나 이 것을 읽어보세요.</p>	5분
	마무리	<p><차시 예고하기></p> <p>·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p>	

출처: 문희진(2019: 54-61) 재구성

3. 수업 평가 단계

수업이 끝난 후, 평가 단계에서의 평가 문항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 학습자들이 축각 형용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 학습자들이 축각을 언어나 표정으로 다양하게 표현했는가?
- 수업 진행 과정 중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가?
- 수업 진행 과정 중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가?

평가가 끝난 후에는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IV. 맺음말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충분한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어로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어휘력이 부족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촉각 형용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비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서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언어 능력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함을 밝히고 동화를 활용한 언어 교육 선행 연구들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촉각 형용사 교육용 동화 목록을 구성하여, 동화를 활용한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모형을 제시하였다.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 모형은 ‘문학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수·학습’ 단계인 계획 단계, 수업 단계, 활동 단계 세 단계로 나누었고, 활동 단계에서는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 문장, 단어 순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활동 단계에서는 ‘감각 놀이’로 구성하여 본 논문만의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 모형을 재구성하였고,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 실제에서는 동화 『피부는 요술옷』을 활용하여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 실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동화를 활용한 촉각 형용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시한 교수·학습 모형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여 연구 결과의 설득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문화·이혜상(2008). 아동문학교육. 학지사.
- 국립국어원(2012).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표준 교재 개발(초등 과정). 2012년 01월.
- 김갑순·김태인(2012). 그림책 중심의 언어활동을 통한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적 변화 탐색 :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30(1), 95.
- 김미진(2012).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설명글 쓰기 특성.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장진숙(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고찰. 이중언어학, 40, 31-35.
- 김영미(2001). 동화로 가르치는 초등영어. 문진미디어.
- 김유리·이현정(2016).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 어휘력과 문해능력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7(6), 263-279.
- 김자연(2003). 아동문학 이해와 창작의 실제. 청동거울.
- 김지혜(2014).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의 한국어 어휘력 신장을 위한 동화 활용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찬화(2005). 韓中 감각형용사 의미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승의·정대우.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 방안: 어종과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 13(2), 25-49.
- 문희진(2019).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축각형용사 교육 방안 연구 :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환(2012). 학부모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글짓기 대백과. 노루궁뎅이.
- 배소영·권유진·진연선·전홍주·곽금주(2010). 다문화가정 이동의 이야기 산출. 언어치료학회, 19(2), 53-72.
- 서정숙·남규(2013). 유아문학교육. 창지사.
- 심영택(2018). 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습자 국어교육 방안. 다문화와 인간, 7(1·2), 31-58.
- 안진숙(2019). 그림동화책 창작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리터러시에 관한 질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9년 5월
- 오소정·김영태(2014). 학령기 다문화가정 언어장애 아동의 어휘지식 및 구어처리 과제 수행 특성. 언어치료학회, 23(1), 55-88.
- 윤미정(2014).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인·이혜춘(2008). 교육심리학. 학지사.
- 이지희(2007). 국어 축각 형용사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차숙(2005). 유아언어교육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임미은(2012).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 교육 내용 연구: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기화(2008). 피부는요술옷. 아람
- 장세영(2009). 한국어 감각형용사의 인식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혜순(2004). 유아놀이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정녕유(2012).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촉각 형용사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란(2016).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발달. 특수교육논총, 31(2), 53-64.
- 정재윤(1989). 우리말 감각어 연구. 한국문화사.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정숙(2021). 그림동화를 활용한 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 지성애 외(2012). 놀이지도. 정민사.
- 최현배(196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7), 2016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17년 6월.
- 한재영·박지영·현윤호·권순희·박기영(2010). 한국어 어휘 교육. 태학사.
- 황선미(2006). 동화 창작의 즐거움. 사계절.
- 황은지(2019).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 전래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Tian Xu·김정남. 온감 형용사 “뜨겁다”, “따갑다”, “덥다”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어 어휘 교육의 관점에서. 텍스트언어학, 39, 1-34.

〈ABSTRACT〉

A Study on Vocabulary Educational Methods of Using Fairy Tales to Teach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the Tactile Adjectives –

Mun, Hui Jin* · Son Gyong 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tactile adjective education plan using fairy tales to cultivate Korean vocabular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actile adjective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do not receive sufficient language stimulation at home can help them play a role as future members of society. Accordingly,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for tactile adjective education using fairy tales with high educational value.

In this study, while maintaining the educational utility of fairy tale activities, fairy tales that are judged to be suitable for presentation to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ere proposed, and educational plans using them were presented. First, 20 fairy tales with various tactile adjectives were presented. In addition, class operation was classified into three stages of ‘class planning stage-class stage-class evaluation stage’, and a model of step-by-step class plan was presented. Finally, the actuality of tactile warrior education using fairy tale Skin Magic Clothes was presented so that it could be used in the educational field.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vocabulary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future, and that continuous research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Fairy Tale, Tactile Adjectives, Educational Methods

논문 투고일	2021. 12. 19
논문 심사일	2022. 01. 19
게재 확정일	2022. 01. 21

* First-Author, Doctoral Student, Inh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Honam University